26일 열린 영화 '사자'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우도환(왼쪽부터), 김주환 감독, 안성기, 박서준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여름, 오컬트 영화 '사자'가 온다

〈초자연적 현상〉

김주환 감독 두번째 작품 7월31일 개봉

안성기·박서준 "강한 캐릭터 보여줄것"

배우 박서준과 안성기가 올여름 오컬트 영화 '사자'로 돌아온다.

다음 달 31일 개봉하는 '사자'는 격투기 선수가 구마 사제를 만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의 사신과 대결을 벌인다는 내용으로, 데뷔작 '청년경찰'(2017)로 565만명을 불러들인 김주환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다.

박서준은 26일 광진구 한 극장에서 열린 '사자' 제작보고회에서 "제 나이에 가장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그가 맡은 배역은 격투기 챔피언 출신 용후.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다 악몽을 꾼 뒤 갑자기 손에 원인불명의 상처가 생기고, 이를 계기로 구마 사제 안신부와 만나게 된다.

'청년경찰' 이후 2년 만에 주연으로 스크린에 복귀한 박서준은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예능 '윤식당2'에서 보여준 밝고 유쾌한 이미지와는 전혀 상반된 캐릭터를 선보인다. 김 감독에 따르면 깊은 상처와 결핍을 지닌 다크한 캐릭터다.

박서준은 "늘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었지만, 비주얼로 어떻게 그려질지, 어떻게 연기를 표현해야 할지 물음표가 있었다"면서 "그런 고민이 반영된 영화로, 관객들이 제 모습을 이질적이기보다 신선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서준은 격투기 등 어려운 액션도 직접 소화했다. 극 중 격투기 장면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실제 종합격투기(UFC) 선수와 촬영했다. 그는 "실제 선수를 보니까 탱크 같았고, 그의 단련된 근육 앞에서 제가 작아지는 것 같았다"면서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안성기는 바티칸에서 파견된 안신부를 연기했다. 한국에 숨어든 강력한 악의 검은 주교를 찾아다니는 역할이다. 1998년 '퇴마록'에서도 귀신을 쫓는 신부 역을 맡았지만, 이야기와 비주얼, 캐릭터도 전혀 다르다는 게 그의 설명.

안성기는 "오랜 세월 구마 의식을 한 사제니까 노련하게 보이려고 했다"며 "일을 할 때는 진지하고 카리스마를 풍기지만, 일을 떠나면 아버지처럼 푸근하고 유머도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안성기는 구마 장면을 위해 장문의 라틴어 대사를 외우느라 고생한 일화도 들려줬다. 그는 "수천 번 정도 외운 것 같다"며 "지금도 그 대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목욕탕에 앉아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 대사를 중얼거린다"며 즉석에서 대사를 시연하기도 했다.

올해 데뷔 62주년을 맞은 안성기는 "요즘 거리 다니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면서 "젊은 친구들은 나를 잘 알아보지 못해 배우로서 은근히 고민이 많았다. '사자'로 그런 고민을 좀 풀어보고 싶다"고 언급해 웃음을 끌어냈다.

우도환은 영화 '마스터'(2016) 이후 다시 한번 악역을 맡았다. 악을 퍼뜨리는 검은 주교 지신 역이다. 그는 "기존과 다른 악을 보여주고 싶었다.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유가 있고, 남들을 쉽게 속이고 현혹하는 지능범"이라고 소개했다.

'사자'는 김주환 감독이 직접 각본을 썼다. "선과 악의 거대한 싸움이 있는 영화"로 소개한 그는 "예전에 프랑스에서 대천사가 악마를 누르고 있는 조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갈등이 느껴졌다"며 영감이 떠오른 순간을 회고했다.

이어 "컨저링 유니버스, 마블 유니버스처럼 한국에서 그런 세계관을 펼치고 그 안에서 많은 인물이 싸울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사자'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이 작품을 4부작으로 기획했다. 2편은 '사자'에 특별 출연한 최우식을 전면에 내세우는 작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사자'에 유니버스를 구축할 판타지적 요소는 다 들어있다. 동시대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 즉 히어로들은 많이 구축된 상태다. 연작으로 이어질지는 관객들의 사랑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계에는 '검은 사제들' '사바하' 등 구마 의식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여럿 나왔다. 김 감독은 "이전 작품들보다 스케일이 더욱 크다. 슈퍼내추럴한 세계관, 가톨릭을 넘어 샤머니즘 등 영적 세계를 소재로 가져왔다"면서 "한국 관객이 그동안 보지 못한 서스펜스와 스릴, 드라마까지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BTS, 韓 최다 음반판매 또 기네스 올라

'맵 오브 더 솔:페르소나' 340만장 판매… 김건모 '잘못된 만남' 제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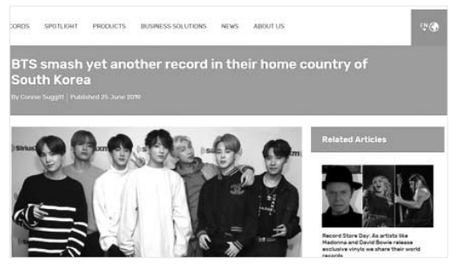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최다 음반 판매량 기록으로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에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기네스월드레코드는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방탄소년단 앨범 '맵 오브 더 솔:페르소나'(MAP OF THE SOUL:PERSONA)가 339만9302장 판매고를 올려 이전 한국 최다 음반 판매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네스에 따르면 이전 기록은 1995년 한국에서 330만장이 팔린 김건모 3집 '잘못된 만남'(Mis-Encounter)이었다.

지난 4월 12일 공개된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는 발매 첫 달 322만9032장이 팔렸으며,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등 세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앨범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뮤직비디오는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비디오',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비디오', 'K팝 그룹 가운데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비디오'란 타이틀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다.



기네스월드레코드는 이 같은 기록을 소개하면서 "방탄소년단은 거대한 팬 아미를 이끌며 가장 많은 트위터 활동(평균 리트윗) 등 다수 소셜미디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이 새 기록을 세울 가능성을 기대했다. /연합뉴스

시청률 '어비스' 2.3% '초면에…' 4.6% 조용한 종영

tvN과 SBS 두 월화극이 조용히 퇴장했다.

2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 방송한 tvN '어비스: 영혼 소생 구슬'은 2.3%(이하 비지상파 유료가구)로 종영했다.

최종회에서는 차민(안효섭 분)이 단 한 번 남은 부활 기회를 사용해 죽은 고세연(박보영)을 부활시킨 뒤 소멸했다가 다시 한번 '어비스'에 의해 부활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어비스'는 영화에서는 물론 '오 나의 귀신님', '힘쎈여자 도봉순' 등 안방극장에서 주로 사랑스러운 매력을 보여준 박보영의 복귀작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초반 내용이 박보영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기보다는 스릴러와 잔인한 장면 위주 장르극 성향을 보여주면서 팬층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이후 중반을 지나 로맨스에 불이 붙었을 때는 이미 시청자들을 놓친 후였다.

'영혼 소생 구슬'이라는 소재로 계속 누군가 죽고 살아나는 작위적인 구성이 개연성 없이 반복되면서 스토리를 이해하기부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0시 방송한 '초면에 사랑합니다'는 3.9%~4.6% 시청률로 마감했다. 최종회는 도민익(김영광)이 정갈희(진기주) 얼굴을 또렷하게 보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다.

'초면에 사랑합니다'는 안면인식장애를 소재로 해 판타지에 가까운 로맨스 코미디 장르였다. 그간 작품에서 안정된 연기를 선보인 김영광과 신예 진기주의 호흡이 어떨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시청자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호평을 받았지만, 상큼발랄함 이상의 매력과 몰입감은 주지 못하며 평범한 로맨틱 코미디극 중 하나로 남았다.

'어비스' 후속으로는 지진희 주연 '60일, 지정생존자'를 방송한다. SBS는 '초면에 사랑합니다'를 끝으로 월화극을 잠시 쉬고 여름 시즌만 예능을 선보인다. 이서진, 이승기, 박나래가 출연하는 '리틀 포레스트'가 첫 주자다.

한편, MBC TV '검법남녀2'는 6.1%~8.3%, KBS 2TV '퍼퓸'은 5.3%~6.9%, JTBC '바람이 분다'는 5.662%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전국시대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단, 하나의 사랑(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태양의 계절(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화첩기행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어사 쿵도령 2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시노스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2019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재)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이몽(재)	00 뛰뛰빵빵 로그인 코리아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2019 KBS광주연중 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 V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봄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오늘밤 김제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절대 그이
11	35 UHD 숨터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섹션 TV 연예통신 1~2부	10 접속!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스포츠 다이어리 30 문화사색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15 띠띠뽀 띠띠뽀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7:45 페파 피그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피피루 안전특공대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마샤와 곰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3:00 지식채널e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3:40 다큐 시선
14:30 띠띠뽀 띠띠뽀(재)
14:4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15:00 탑윙 구조대
15:30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5:4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16:00 예술아 놀자
16:1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16:30 딩동댕 유치원1~2(재)
17:00 EBS 뉴스
17:20 다큐동화 달팽이
17:30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00 레이디버그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0:40 세계테마기행
〈알프스 산골기행 4부 즐거운 알프스 생활〉
21:30 한국기행
〈여름이면 울주 4부 바다가 키우고 바람이 보듬고〉
21:50 다큐 시선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7일(음 5월 25일 乙未)

子 36년생 가닥부터 잡아나가는 것이 실효적이다. 48년생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60년생 즉시 보완해 둬야 한다. 72년생 처음에는 난감할 것이나 점차 자리를 잡는다. 84년생 공감하였다고 해서 공동 행동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행운의 숫자 : 10, 39

丑 37년생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다. 49년생 기초가 부실하면 사상누각이 되는 법이다. 61년생 비슷한 국량으로 환원될 것이다. 73년생 선택과 집중 그리고 조절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85년생 여태까지 내버려두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9, 31

寅 38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다. 50년생 관리와 확인이 절실하다. 62년생 발전적인 방향이므로 계속 진행해도 된다. 74년생 운로는 좋으니 언행만 주의하면 된다. 86년생 되풀이 한다고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53, 74

卯 39년생 가까운 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51년생 유연한 사고방식이 순조로움을 이끌 것이다. 63년생 유기적인 관계의 설정이 요구 된다. 75년생 참으로 질기면서도 미묘한 인연 앞에서 당황 하리라. 87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이 요구 된다. 행운의 숫자 : 49, 02

辰 40년생 내버려 두면 위험하니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라. 52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64년생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조하는 것이 좋다. 76년생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야 파악할 수 있다. 88년생 크고 작은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2, 72

巳 41년생 성과물이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된다. 53년생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65년생 잘 추스른다면 자족할 수 있다. 77년생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89년생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여든 이들로 가득 차 있다. 행운의 숫자 : 15, 08

午 42년생 미리 준비해왔다면 지금부터 빛을 보게 되는 길목에 들어선다. 54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걸림돌로 작용한다. 66년생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78년생 파격적인 행보가 있을 수다. 90년생 관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수다. 행운의 숫자 : 55, 44

未 43년생 하루 종일 노심초사 하리라. 55년생 영문도 모른 체 함께 하게 될 것이다. 67년생 사소함을 내버렸을 때 거대함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 79년생 골격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91년생 더불어 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행운의 숫자 : 56, 23

申 44년생 순환하면서 상생의 기운이 머문다. 56년생 가장 자리가 매우 부실한 형태이니라. 68년생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80년생 의지와 상관없이 해나가야 할 때다. 92년생 전혀 예상치 못한 형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4, 30

酉 45년생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뒤돌아보라. 57년생 순간적인 격정을 생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69년생 집착과 미련을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81년생 합리적이어야만 알찬 결실을 맺는다. 93년생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7, 73

戌 34년생 변화무쌍함에 놓였으니 진중한 행동이 요구된다. 46년생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빈틈이 보이리라. 58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니라. 70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라. 82년생 모순이 보인다면 확실하게 뜯어 고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71, 27

亥 35년생 기뻐하는 태양이다. 47년생 문제점이 보이거든 초기에 발본색원해야 탈이 생기지 않는다. 59년생 상대의 은덕으로 인해 감동 받겠다. 71년생 장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무방하다. 83년생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 낸다면 희망찬 미래를 연다. 행운의 숫자 : 17, 4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